

ART LOG

April 2025 | 편집부

ART

최재은
자연국가

LOG



<새로운 유대(New Alliance)> (detail) 2025 Wood structure with pressed flowers on 112 urushi lacquered wood panel, framed 212.6×238×6.9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사진: 최재은 스튜디오

생명의 흐름과 시공간에 대한 고유 철학을 시각화해 온 작가 최재은의 개인전이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1976년 일본의 도쿄로 건너간 그는 소게츠(草月) 아트 센터에서 일본 전통 꽃꽂이인 이케바나(生け花)를 전수받았다. 실내 정원을 13t의 흙으로 덮고 그 위에 씨앗을 뿌린 <대지(Earth)>로 첫 개인전을 개최했고, 이후 생명의 근원과 시간, 존재의 탄생과 소멸, 자연과 인간의 복합적인 관계는 그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조각과 설치, 건축, 사진, 영상, 사운드 그리고 과학을 접목한 시도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확장되었다.

이번 개인전은 작가의 오랜 관심사인 '숲'을 바라보는 것에서 비롯된다. 일상에서 직접 느낀 숲의 경험부터 긴 시간 이어온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작업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매일 산책하는 숲을 옮겨 낸 '숲으로부터' 회화 연작은 교토의 숲에서 주운 낙엽과 꽃잎으로 물감을 만드는 작가의 고유한 색채를 보여준다. 분홍색과 황토색, 옅은 갈색의 표면 위에 숲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 새소리, 빗소리 등을 음차해 축연으로 적었다. 숲의 빛과 소리에 관한 관심은 작가가 직접 쓴 시 <나무의 독백>과 황금색 나뭇가지 조각 설치로 이어진다.

한편 'DMZ 프로젝트'는 10여 년간의 연구를 담은 대장정으로, 한반도 비



<자연국가(Nature Rules)> (detail) 2025 Silk, cotton linen and washi (foil) 155.4×122×2.7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사진: 최재은 스튜디오



<최재은_자연국가> 전시 전경 2025 국제갤러리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무장지대의 생태 회복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땅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유대(New Alliance)'를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다. 오랜 기간 남북의 군사적 개입으로 파괴된 비무장지대의 생태 현황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분석하고, 복원을 위한 식재의 종류와 양을 정리하는 데 수년을 보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지뢰가 매설된 그곳에 나무 종자를 품은 작은 '종자 볼(seed bomb)'을 빙어 드론으로 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천했다.

작가가 수집하고 말린 꽃잎으로 제작된 병종 안에 놓인 컴퓨터에서, 관람객은 웹사이트에 접속해 DMZ의 지도를 살펴보고 원하는 구역에 '종자 볼 기부 약속'을 등록할 수 있다. 100원에 한 개의 종자 볼을 기부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젝트에서 종자 볼은 DMZ의 숲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인 동시에 수많은 참여자를 결속시키는 매개물이기도 하다.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지난 70여 년간 정치적으로 파편화되었던 DMZ가 자연의 주권을 회복하고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 땅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염원, 새로운 희망을 위한 실천에 참여해 볼 수 있는 전시는 5월 11일까지 국제갤러리 K2와 K3에서 진행된다. 문의 국제갤러리 서울 02-735-8449